

“결승행 티켓 우리가 거머쥔다”

오늘 FA컵 전국 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경남 VS 국민은행(11시), 포항 VS 대구(14시)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이 1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경남FC가 실업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고양 국민은행과 오전 11시 먼저 대결하고, 이어 오후 2시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가 격돌한다.

무엇보다 K-리그 팀 싸움인 포항-대구전이 관심이 쏠린다. 두 팀 모두 K-리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다. K-리그는 막을 내렸지만 올해 마지막 남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자 간판 골잡이들도 다시 축구화 끈을 조여댔다.

첫 우승에 도전하는 대구에는 ‘토종 골잡이’의 자존심 이근호(23)가 있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공격수 부문 베스트 11에 뽑힌 이근호는 올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13골6도움을 올려 한국 공격수 중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올해를 끝으로 대구와 계약이 끝나 자

유계약선수(FA)가 되는 이근호로서는 이번 대회가 대구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근호는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근호는 거취 문제와 관련, “지금은 FA컵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을 아끼며 팀에 창단 후 첫 우승컵을 안기고자 훈련해 왔다. 이근호는 울산 현대와 대회 8강에서 두 골을 넣어 2-1 승리를 이끌었다.

4강 진출팀 소속으로는 이근호와 예닝요(대구), 김동찬(경남)이 2골로 대회 득점랭킹 공동 1위에 올라 있어 이근호로서는 득점상도 노려볼 만하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부상에서 복귀한 브라질 출신 골잡이 데닐손(32)에게 기대를 건다.

올해 대전 시티즌에서 포항으로 등지를 튼 데닐손은 9월 팀 훈련 중 무릎 인대를 다쳐 그라운드를 떠났고, 브라질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주 팀에 합류했다. 부상 전까지 팀내 최다골(6골)을 터트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린 올해 마지막 대회인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고양 국민은행의 이우형 감독과 경남FC 조광래 감독, 대구FC 변병주 감독, 포항 스틸러스의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왼쪽부터)이 우승컵을 사이에 두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던 데닐손은 소속팀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울산 현대에 패해 K-리그를 마감했다는 소식을 브라질에서 들어야 했다. 그래서 FA컵 우승으로 팀에 진 빛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마음 뿐이다.

두 팀이 FA컵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프로축구 무대에서는 1996년 원년 대회 우승 이후 준우승만 세 차례 차지했던 포항이 8승7무4패로 앞선

다. 특히 올 시즌 K-리그에서 두 차례 격돌은 모두 포항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근호는 올해 포항과 두 번째 대결이었던 9월 홈 경기(1-4 패)에서 만회골을 터트렸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데닐손은 4월 홈 경기(3-0 승)에서 2도움, 9월 원정경기에서는 1도움을 올렸다.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결승골을 배달했다.

2년에 30억원

J-리그 감바, 조재진에 거액 연봉 제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감바 오사카가 ‘작은 황새’ 조재진(27·전북 현대·사진)을 영입하려고 거액의 연봉을 제시했다.

전북 현대는 17일 “감바 구단으로부터 지난 주 조재진을 영입하고 싶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감바는 계약 기간 2년에 2억원(약 30억원) 정도를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북은 감바 측에서 적절한 이적료만 지급하면 조재진의 J-리그행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재진의 J-리그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감바가 조재진 영입에 나선 데에는 올해

K-리그에 복귀하기 전까지 시미즈 S필스에서 3년6개월을 뛰었던 조재진이 J-리그에서도 충분히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그러나 이적료에서 감바와 이견을 보여 조재진 이적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황.

백승권 전북 사무국장은 “조재진 본인이 감바행을 원하고 있고 구단 역시 이를 막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다만 구단 간 이적료에 차이가 있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바는 울산 현대에도 수비수 박동현(29·울산 현대)에 대한 이적 동의를 발급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올림픽 영구종목 되도록 총력”

문대성 IOC선수위원 밝혀



아시아 경기인 출신으로는 첫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32·사진) 동아대 교수가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올림픽 영구 종목으로 존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지난 8~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선수분과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돌아온 문대성 IOC위원은 17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크 로제 IOC 위원장을 만나 태권도가 올림픽 운동 확산에 가장 부합되는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으로 비로소 IOC 위원에 됐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힌 문 위원은 “WTF(세계태권도연맹)와 논의해 내년 8월부터 매달 한 차례 이상 각국을 돌며 국제포럼을 개최해 태권도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나라의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의 투표에서 1위로 IOC 위원에 선출된 그는 8년의 임기 동안 활동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력 사업으로 ▲스포츠 외교력 증진 ▲스포츠인의 인재육성 개발 ▲청소년올림픽 활성화 ▲아시아 올림픽급 확산 ▲스포츠 저개발 국가 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거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IOC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하루 15시간 이상씩 선수들을 직접 만난 끝에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2명의 IOC 위원인 문대성 위원은 최근 결정한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참가하는 등 선수 출신이지만 임기 8년 동안 똑같은 권한을 지니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 FIFA랭킹 42위

지난 달보다 11계단 ‘경증’

한국 축구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승리에 힘입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수직으로 상승하며 6개월 만에 4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FIFA가 발표한 12월 남자축구 세계랭킹에서 지난달보다 랭킹 포인트가 42점 늘어난 631점을 획득, 종전 53위에서 42위로 무려 11계단이나 점프했다.

한국의 40위권 진입은 45위였던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한국과 내년 2월 11일 최종예선 4차전을 치르는 이란은 종전 44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은 43위였고 같은 최종예선 B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48위, UAE는 110위, 북한은 113위였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산하 국가 중에서는 호주가 28위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이 35위에 자리했다.

한편 올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챔피언 스페인이 6개월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박지성 몸풀기 FIFA 클럽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일본을 찾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왼쪽)이 17일 가나가와의 스타디움에서 감바 오사카와의 경기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목)

-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대구FC : 포항스틸러스)(13 : 50·MBC)
- ▲08/09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신세계)(16 : 50·SBS스포츠)
- ▲08/09 프로농구(KTF : LG)(18 : 50·

MBC ESPN·Xports)

- ▲NH농협 08/09 V리그(삼성화재 : 신협상무)(18 : 40·KBS n 스포츠)
- ▲FIFA 클럽월드컵 2008 준결승(맨체스터 Utd : 감바 오사카)(19 : 20·SBS스포츠)

19일(금)

- ▲2008 PGA 세브런 월드 챔피언십(05 : 00·SBS스포츠·SBS골프)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정기대박잡비(총장점) (구)사랑방식당 학생회관 뒷 골목 삼겹살 갈비전문점 대표 최향근 ☎(062)234-3888	금강산 동구 계절동 구시청 교보빌딩1층 영광빌딩점,금강산점,조기조립,길치조립 고등어조립,생태탕,성오리구이,주물럭전문 ☎(062)527-8592	중앙수산 동구 학동 목화애식당 맞은편 회포장배달 김진군수협 9,12번 중매인직영점 대표 이승현 ☎(062)224-0089	우림다방 동구 동명동 대인시장건너 전여고쪽 지하 커피, 녹차 등 대표 조은숙 ☎(062)226-5405	(주)영서모터스 서구 매월동 종합지동차 매매단지101동106호 화물차,승합차,전차종 소형,중형,대형,RV지프 연식무관 수출차량 폐차차량 최소가대입 ☎(011)628-0554	
한우가든 장성군 영천리 산림조합옆 4거리 장성군농협농산물판매장(농산물)옆 대표 양춘자 ☎(061)393-0073	상지공인중개사 서구 금호동 금호1동사무소옆 대출일선,분양권,아파트,상가,단독,토지공공경매 대표 임경심 ☎(062)222-2799	풀잎문화센터 동구 충정로 3가 이프우 후문 옆 여성전문시대 실력있는 강사진, 편리한 교통 대표 배지혜 ☎(062)234-5579	대박추어탕 북구 일곡동 중앙교회 정문 앞 추어탕,추어튀김,닭백숙,닭도리탕,오리탕 단체예약손님환영 ☎(062)575-4688	약산축협소가든 광산구 신가동 육교 앞 축협소 전문요리점 청동요리,주물럭,전골 대표 정호 ☎(062)954-9233	완도명품전북 동구 학동 농협 호남마트앞 완도덕우 도점전북 완도다시미전북 대표 손영성 ☎(062)227-0009	회평집 남구 양림동 남경중시장 맞은편 학당리옆 김치찌개,된장찌개,동태찌개,호박찌개,홍어무침 제육볶음,김치조림,산낙지,각종회무침 ☎(062)651-5531
몽방식당 장성군 창운동 장성역 앞 보신탕,수육,백숙,도리탕,삼계탕,추어탕 호박찌개,오리탕,김치찌개,생태탕,제육볶음 ☎(061)393-0073	메이저스크린골프 광산구 윤남동 삼성@입구2층 골프연습장 대표 이연복 ☎(062)954-0752	금호부동산 북구 누문동136-1 상가,민대,매매,토지,아파트,건축상담,건설컨설팅 대표 윤재홍 ☎(016)620-1568	한라원 북구 일곡동 마트맨마트 주차장 입구 앞 제주목요리점,가브리얼,삼겹살,한우목육삼구이 생고기,홍어,키조개,낙지,알탕,보리냉면 ☎(062)573-4411	남성특보1급사랑방이발관 남구 진월동 씨티병원 육교건너 귀동국 사우나,이발부경력 전지물결(취미) 대표 신종수 ☎(016)625-9353	참외 동구 궁동 구)동구청 뒷편 유기농채소 직접재배 생산한이제서용 목포김치 이채쌈밥,생태탕,매생이탕 단체예약환영 ☎(062)222-1215	해물나라 북구 육동 삼성병원옆 백반,김치조림,병어조림,명태탕,해물탕 전통 요리의 명가 ☎(062)524-7949
곰달래감자탕 담양군 자침리 테미널후문 회덮밥,모밀,우동,감자탕 대표 박인남 ☎(061)383-1575	지제이산업 광산구 오선동 하남공단@형공장101호 대표 김광주 ☎(062)953-0538	신용시대직업안내소 북구 양산동 양산초등학교 입구 여성전문직업소개소 여성일당 하실분 주빙실장 천모,설거지,출세빙,파출부,간병인,청소 ☎(010)6660-8040	가마솥추어탕 북구 북구청에서 동강대사이 향백수퍼앞 가마솥추어탕,웅구메기탕,숙회,튀김 ☎(062)431-1661	TRY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센터 건너 란제리,인더웨어 대표 최정일 ☎(010)3602-7605	서호실업 동구 궁동 한미소빙4거리 이회빌딩406호 인터넷이동통신가입식 삼성퍼브42인치 TV 무료중정점정해번호이동통신구 시은품중정 ☎(062)233-9789	플로리아 북구 일곡동 일신중학교 맞은편 중앙교회 옆 제일리뷰,레스토랑,호텔식음주부대,돌잔치 회갑연,결혼리뷰,홀수연,단체모임 ☎(062)572-1200